

#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4, 마가복음 8:14-9:1, 누룩, 눈먼 사람, 베드로의 고백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마가복음 8:14-9:1, 누룩, 눈먼 사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다시 계속하고, 오늘의 마지막 섹션에서 우리는 첫 번째 측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주요 요소인 예수의 권위를 제시하는 것을 끝내고, 두 번째 측면, 즉 예수가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예수의 죽음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인자의 이 포괄적인 주제와 그 두 용어가 거의 반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11-1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표적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부족, 이해의 부족, 심지어 그들이 표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심판의 선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우리는 제자들이 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고 4,000명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질문은 마가복음의 다음 부분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이어집니다. 어쩌면 13절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들을 떠나 배에 다시 올라타 반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있던 빵 한 개를 제외하고는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조심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서로 이에 대해 논의하며 말했다.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다 .

예수께서 그들의 토론을 알고 계셔서, 왜 빵이 없다고 말하느냐? 아직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완악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5,000명에게 떡 다섯 개를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몇 바구니의 조각을 주웠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열두 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4,000명에게 떡 일곱 개를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몇 바구니의 조각을 주웠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일곱 개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이해 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흥미로운 상호작용입니다.

첫째, 사실 약간 희극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배에 타고 있고 제자들에 대해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잊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건망증과 기억, 기억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기억은 조금 다르게 작용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에 가지고 있던 빵 외에는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들은 빵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잊었고, 그런 다음 예수는 , 그 장면은 예수가 이 대화를 듣고,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이것에 대해 서로 논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거의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 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토론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왜 빵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그분은 제 말은 빵이 없다는 사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까? 당신의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이제, 보는 것 또는 이해하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에 대한 이 언급과 바로 다음 두 가지 질문: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합니까?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까? 제 말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상호 작용하는 것을 본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5:21, 에스겔 12:2.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사야 6:9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4:11-12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빵이 부족한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배 위에서의 우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무지가 여기 배 위에서 두 번이나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시는 것은 순간의 중요성과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그분의 것을 위해 공급하시는 관대한 공급을 보는 것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물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빵이 부족한 것에 대해 논쟁하고 논의합니다.

그들이 빵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논쟁하고 논의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바리새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은 강박해지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헤롯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예수를 죽이려는 욕망으로 연합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전통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생활 방식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헤롯이 세례자 요한을 처형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그는 또한 자신의 인간적 맹세와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무언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인간적 맹세를 이행하고 그의 잔치 동료들의 명예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에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폭풍 속에서 배 위에서 당황한 그들을 질책하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저는 그 시점에서 그들의 삶이 파괴되거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효모의 그림도 흥미로운데, 효모는 전체 빵을 감염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무효 또는 그것이 출애굽기 모티프에서 의미하는 바에 따라 따로 떼어놓는 것조차 . 하지만 은유, 효모가 하는 일의 그림,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그것이 시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과 함께, 기억하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라는 이 부름은 성경적 측면입니다.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 기억하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

기억하라. 세워진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행하신 일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기억하라는 부름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 이봐 , 몇 주 전에 일어난 일을 잊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행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는 행위는, 이 성경적 그림에서, 기억하라는 부름은 또한 미래를 신뢰하라는 부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실 일을 믿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암묵적인 질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알다시피, 5천 명을 위한 5개의 빵과 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4명을 위한 7개와 바구니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개로, 그는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끝맺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우리가 여기서 무대를 설정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은, 만약 당신이 완벽한 이해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경함과 거부로 선을 그었다면, 그들이 수집하는 것의 측면에서 그들이 완벽한 이해보다 지금 그 끝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없지만, 그들은 그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4천 명을 먹이실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저는 마가가 여기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거부했고 그가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거부했기 때문에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먹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점점 더 두드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의 시작 부분에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전반에 걸쳐 매우 부정적인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림,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것을 표현하는 그림 역할을 하는 기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먹이는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제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벳새다에 왔고, 어떤 사람들은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만져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적 이야기를 제시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예수께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시자, 어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듣고, 기적을 위해 누군가를 데려옵니다. 그는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우연히도, 그것은 귀머거리와 병어리를 치유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청중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청중이 여기 마을 전체가 아니라 밖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셨을 때, 당신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나무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고, 그러자 그의 눈이 열리고,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침의 두 번째 용도가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또한 눈과 같이 장기를 만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이 처음에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마크의 독자로서, 당신은 그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눈먼 사람을 옆으로 데려가서 그의 눈에 손을 얹었어요. 그는 침을 뱉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일이 눈에 생긴 끈적끈적한 것을 문지르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제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하신 일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긁어대시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들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는 예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 마치 예수의 침이 귀머거리와 병어리와 관련된 치유에 사용되었던 것처럼. 지금은 실명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다시 한번 예수께서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기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가를 따르고, 예수께서 그저 무언가를 행하시고, 멀리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손을 얹으시고, 붙잡으시고, 즉각 회복하시는 것을 보는 데 익숙하다면, 모든 것이 항상 즉각 회복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베드로의 시어머니가 열병을 앓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비된 사람이 다리를 튼튼히 해서 매트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된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즉시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딸이 완전히 회복된 시로페니키아 여인. 심지어 죽은 야이로의 딸도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 다시 한 번 시도해 볼게요.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께서 즉시 그리고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는 방식을 의도적으로 바꾸었다는 사실과,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이 기적 자체만큼이나 메시지의 일부라는 생각을 함께 결합한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두 단계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무능이 아니라 무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마가는 우리가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할까요? 글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그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을 이 사건으로 부르신 후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 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서 즉시 그가 고백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눈먼 사람의 치유는 거의 포물선적 기능을 합니다. 그것은 그림을 만들고, 군중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이 사람이 끌려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눈먼 사람의 치유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어느 정도 보았지만, 완전히는 보지 못하다가 완벽하게 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의 그림이 됩니다.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에게 불렀고, 다시 말해서, 예수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에게 불렀고, 예수에게 불림을 받는 과정에서, 예수 주변에 있고,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가 신비를 풀어주는 곳에서, 그들은 보기 시작했지만, 명확하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그들이 결국에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마가복음의 독자를 위해 생각합니다. 마가는 당신이 그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그것이 올 것이고, 서사의 진행이 일어나면서 명확성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의 선택과 이 기적의 배치, 특히 서사에서 이 기적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강조가 마가복음의 독자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첫 번째 주요 부분의 전반부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가버나움에서의 첫날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날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히 입증되었는데, 그분이 더 강하고 기적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전환점, 말하자면 한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의 이 이동의 스트레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한지는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여기서 발생하는데, 이는 복음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의 이 변화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이 예언, 고통, 수난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제자들이 오류에 빠지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한 예측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군중 대신 제자들에게 초점이 옮겨가고, 초점은 제자들에게 옮겨갈 것입니다. 이 고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그것을 둘러싼 사건과 가르침이 너무나 완벽해서 사실이 아니고, 너무나 좋아서 사실이 아니라는 우려나 주장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초기 교회의 창조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매우 교육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에 있는 무거운 그리스도론적 강조점과 그것이 수난과 수난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초기 교회나 심지어 마가의 삽입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역사성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장소는 카이사레아 빌립보 외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도시에 비하면 큰 도시는 아닙니다. 더 큰 복음서 이야기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구약성서의 이야기와 큰 주제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베드로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의 일이었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부정적인 빛으로 표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서 선호했던 칭호 중 하나인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초기 교회에서는 빠르게 인기를 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언어가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작용하는 사건에는 역사성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앵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역사성을 말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질책하고 베드로를 사탄과 비교하는 것은 교회가 만들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삽입했을 법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메시아와 부활을 연결한다는 이 아이디어조차도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중 하나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예수께서 부활을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독특한 부활 경험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연결하기 위해, 부활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도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 심지어 메시아적 사상과 부활 사상의 연결조차도, 그것이 단순히 삽입된 것이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약간 강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진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8:27로 시작하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카이사레아 빌립보 주변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 길에서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 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잠깐 거기서 멈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한 질문이었습니다. 폭풍을 가라앉힐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악마에게 말하고 그들이 복종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최근에는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병어리를 말하게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계속 질문을 받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 사람들이 그를 누구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입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순서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헤롯과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에 대한 질문에서 본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들은 헤롯이 듣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말하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논의해 온 것 중 하나이고, 저는 그것을 완전히 구체화하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세례자 요한의 망토나 영은 지금 예수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매우, 매우 터무니없는 대답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물론 여기에는 이런 진행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돌아와서 메시아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종말론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약속되고 기대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진행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독자인 당신과 저도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우리는 그가 세례자 요한의 일을 떠맡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실제로 이 사람이 나보다 강하고,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변형에 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가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세례자 요한과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 선지자들 중 한 명. 이제, 예수가 선지자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면에서 선지자들과 매우 유사한 일을 해왔습니다. 선지자라는 개념과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더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올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대에 암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러한 답변은 세례자 요한의 사역, 엘리야의 종말론적 선구적 인물, 또는 선지자 중 한 명 또는 선지자 중 한 명과 관련이 있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예수께서 돌아오시면서,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어의 언어는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에게 강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이 순간의 핵심 질문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업해 왔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이 이해했는지 알고 싶어하는 이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첫째, 매우 긍정적입니다. 베드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 대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마가는 베드로를 제자들의 지도자이자 제자들의 대변인으로 매우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가 제자들을 나열했을 때, 베드로가 그 목록에서도 두드러지게 언급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는 다른 11명이 그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태복음에서처럼 여기서 본격적인 대화가 없고, 그것이 은사였고, 고백이 신으로부터 온 계시의 은사였으며, 베드로의 권위와 결합되어 자물쇠를 풀고 열쇠를 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을 얻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이 경고는 예수께서 그 고백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말에 대한 확증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바로잡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아온 것은 예수께서 위대한 전시에서조차도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위대한 권력의 전시나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또는 정치적 열광과 연결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고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고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맹인의 두 단계 치유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매우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베드로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과는 달리, 그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그들을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연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해야 하며,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 후에 시작해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31절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가르침의 다음 단계에 대한 요약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즉시 일어나지만, 또한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31절에서 그가 가르치기 시작한 그 구절조차도 그의 가르침의 초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가르침의 초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고, 회개하고 믿으며,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증거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가르침을 사람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필연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 운동은, 우리는 서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정은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새로운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목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로 전환되는 것 중 하나는 일어나려는 일의 미리 정해진 특성입니다. 예수 의 가르침, 그의 가르침의 주제는 그의 죽음이 미리 정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자의 모습은 우리가 이야기해 온 다니엘 7장의 이미지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고백을 취하여 이제 그 메시아 고백을 인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섞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런 기업적 표현을 취하고 있고, 이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인물, 다니엘 7장의 인자와 같은 인물에 대한 기업적 표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두 거대하고 통치하고 대표적인 인물을 취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혈통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묵시적 이미지에 대한 것이고, 그는 그것들을 함께 모아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중요한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표는 제가 이것에 대해 계속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저를 죽이고 싶어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는 그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단순히 죽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어야 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모티브는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티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인물이 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는 명시적으로, 하나는 암묵적으로, 제 생각에는 더욱 구체화된 것은 메시아, 인자, 고난받는 종의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이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인물이 어떻게든 거부당하는 고통받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진행을 얻고, 고통의 진행을 얻습니다. 그는 거부당할 것이고, 장로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것이고, 장로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이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이고, 율법의 선생들, 서기관들로부터 거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집단은 그를 거부할 것이고,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 대신 죽었다는 말을 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것이 초기 교회의 산물이었다면 학자들은 단지 의미 때문에 죽었다는 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 심지어 죽음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언어는 아마도 그곳에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조차도,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후기 교회, 초기 교회이지만 후기 시대의 문서에서 보통 보는 것과는 달리, 사흘 후에, 또는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흔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제 시간이 작동하는 방식이 구상되고, 고대 세계에서는 날짜를 약간 다르게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표현 방식, 제가 3일 후라는 표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기 교회 문서에서 보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32절에서 그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비교해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비유는 비유로 군중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가 이것을 수수께끼로 가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는 필요성을 암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연히 그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입니다. 글썄요, 마가는 이미 그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 비유의

그림, 기적의 그림은 거기에 보이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그 이해, 제 생각에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과 더불어, 저는 이 힌트를 기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기억하라는 부름은 여기서 예수가 말하는 모든 것이 기억되고 복음 선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많은 것을 끌어왔다면요.

증거 중 하나는 베드로의 고상한 언어를 여기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베드로의 권위와 선물,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 그리고 베드로의 첫째됨의 본질에 대한 격상이 약화된 이유는 베드로가 아마도, 제 추측이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베드로도 그것을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넘어가고, 그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32 절,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따로 데려가서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방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인했지만, 가르침의 새로운 형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한 베드로의 인간적 이해에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옆으로 데려가 부끄럽게 여기고, 꾸짖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면서도 예수가 하는 말에 대해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가 메시아로서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에 더 부합하며,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했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에 더 가까운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책망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해 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꾸짖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 다음 33절에서 예수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이제, 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마가가 베드로에게 다가올 꾸짖이 제자들에게 확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질책한 행동도 제자들의 이해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과 베드로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지 여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게 말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염려만 생각한다. 그 언어는 무엇보다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다.

아시다시피, 이건 무거운 발언이고, 당신은 신의 계획에서 필요한 것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꾸지람을 생각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엑소시즘과 악마를 사탄의 통치, 사탄의 권능과 연관시켰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베드로를 거의 악마의 활동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당신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지 인간의 관심사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 인간적 명령의 고양, 구전 전통, 그리고 신의 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내리신 말씀과 거의 정확히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신의 명령보다 인간적 전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같은 용어로 비난합니다. 이것은 그가 베드로와 그가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리신 책망과 같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이해는 나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코빈에 대한 그들만의 버전을 홍보하고 싶어하고,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갖고 싶어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의도와 뜻과 의미에 어긋납니다.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마크가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예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에 대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이 질책은 날카로운 질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깨닫게 합니다. 그들은 제자도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대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과 군중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제자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우 비슷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따라가듯이,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도권은 항상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여기로 데려가시고, 저기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내쫓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서사에서 제자들이 군중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르다는 것은 제자들의 성격이나 이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예수의 선택과 의도에 있는 듯합니다. 마무리로, 여기 8장입니다. 예수는 이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또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9 :1, 내 생각에는 이것과 함께 간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온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제자도를 거부했던 이 움직임이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돌아서서 진정한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왕, 스승의 길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자신이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참된 제자도는 고난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권세나 사물에 대한 세상적인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모든 것과 모든 관심사를 기꺼이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얻거나 영혼을 잃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큰 역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메시아이자 인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십자가 언어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논쟁은, 글썄요, 그가 십자가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나중에 삽입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수치심의 거대한 상징이자 로마의 정치적 권력의 거대한 상징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에서 예수님은 나를 메시아로 따르는 것이 로마의 전복과 카이사르와 그의 모든 심복들의 제거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제로 카이사르의 지배를 기꺼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카이사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를 기꺼이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차 언어가 초기 교회의 삽입, 오히려 초기 교회의 후기 삽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실제로 고통과 메시아적 함의의 상징성 내에서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내 말로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이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리고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를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구원과 언약 관계의 수립에 대해 불평하고 투덜거리던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 베드로가 방금 한 것처럼, 내가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나를 책망하는 사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간음하고 죄 많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배척한 이 세대의 일원이며, 내가 이미 심판을 선언한 사람이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계속된 모습이며, 그 죄 많은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를 가리키며,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인자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나를 거부한다면, 즉 내가 메시아이고 인자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대로, 당신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심판에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9-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특정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단순히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구름 속에서 돌아오는 인자를 예상했고, 그 세대가 죽기 전에 구름 속에서 돌아오는

인자의 모습인 자신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곧 일어날 변형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권능, 하나님의 왕국, 위대한 그림 속에서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변형은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저는 문맥을 감안할 때, 그 어느 것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것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예수께서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셨다고 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왔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는 것, 인자가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난, 거부, 죽음, 부활을 말합니다.

저는 그 맥락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두 가지 요소를 더 작용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변형일 것입니다. 여전히 가능한 한.

저는 부활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변형의 문제 중 하나는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다음 6일 후에 이 일이 기본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진술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다음 6일 동안 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그렇게 환상적인 선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이 여기 서 있을 때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가 언급하고 있는 참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9장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의 두 번째 주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전하는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마가복음 8:14-9:1, 누룩, 눈먼 사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